

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3권 2호, 2007, 한국보육지원학회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Vol. 3, No. 2, 2007, pp.68-85
 Korean Association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영아기 첫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임신 및 출산, 양육 변인에 관한 연구 : 2002년과 2007년 실태 비교를 중심으로

Prevalence Study of Mothers' Perception on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care: Comparison Between Years 2002 and 2007

김양은(Yang Eun Kim)*, 조복희(Bok Hee Cho)**, 정민자(Min Ja Jung)***

본 연구에서는 36개월 미만 첫 자녀를 둔 어머니 270명(2002년 183명, 2007년 87명)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임신 및 출산, 양육지식과 양육스트레스 수준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1) Knowledge of Child Development Inventory(KCDI)(Larsen & Juhasz, 1985), 2) 양육스트레스(김기현, 강희경, 1997)와 양육관련 설문지를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초통계와 신뢰도 검사, t-test 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2년에 비해 2007년에는 결혼 후 첫 자녀를 임신 하는 시기는 빨라졌고, 자연분만으로 출산을 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었다. 출산 시 남편이 분만실에서 같이 출산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졌으며, 산후조리는 친정이나 시댁에 의존하던 비율이 줄어들고, 산후조리원이나 고용인을 두고 조리를 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었다. 반면, 남편의 육아에 대한 참여 수준은 2002년과 2007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어머니의 양육지식 수준은 2002년에 비해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2002년에 비해 더 높은 수준으로 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지난 5년간의 영아모의 임신 및 출산에 관한 여러 환경의 변화를 살펴본 것으로, 향후의 변화추이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영아기,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 제1저자(교신저자): 경희대학교 강사

** 공동저자: 경희대학교 아동학 전공 교수

*** 공동저자: 한국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I. 서 론

아기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태내 환경에 의해 어머니의 영향을 받게 되고, 출생 후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환경 또한 부모이기 때문에 출생 전후로 완전히 부모의 영향 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신생아기와 영아기는 그 어느때 보다 부모의 보살핌이 절대적인 시기여서, 부모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양육하는지에 따라 발달의 기본 틀을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발달의 기초는 그 이후 발달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박성연, 도현심, 안지영, 1997).

부모의 양육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은 무수히 많지만, 대표적으로 민족이나 종족에 의한 문화적 배경과 시대적 변화가 가장 큰 차이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양육은 미국이나 일본의 것과 다르며(이정덕, 박영진, 1984), 우리나라 내에서도 서울과 제주도의 양육이 다르며(문재희, 1987), 2000년대와 1900년대는 또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10년간의 급진적인 사회변화는 여성의 임신 및 출산, 양육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은 급속히 늘어났으며, 여성의 결혼 연령은 늦어졌다. 이에 따라 취업모, 핵가족화, 저출산, 가족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인해 어머니들의 양육에 관련된 환경과 의식도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대가족의 가족 형태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부모들은 그들의 부모됨의 모델링을 자연스럽게 배워나갈 수 있었고 부모가 된 이후에도 부모로서의 부족한 부분을 조부모나 기타 다른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보충할 수 있었으나, 현대에는 가족의 규모가 핵가족화 되어감에 따라 어머니들은 육아에 대한 즉각적인 도움을 받기가 어려워져 육아는 전적으로 부부의 몫이 되었다. 이에 따라 양육의 주요 책임을 담당하는 어머니의 역할과 부담감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어머니의 자녀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사회환경의 외적인 변화와 더불어 어머니의 인지적, 심리적 측면과 같은 어머니 내적 변화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어떠한 일을 수행하려면 우선 그 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통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하며, 그러한 지식은 일을 수행하는데 자신감을 형성하고 궁극적으로는 그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는 자원이 된다. 부모의 역할도 마찬가지이다. 양육행동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지식과 정보가 있어야 한다. 양육지식이란 영유아의 전반적 발달 지식과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신체발달, 정서발달, 인지발달, 사회성 발달 영역으로 나눌 수 있으며, 아동을 이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호작용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기대를 형성하게 되고 자녀양육에 있어 내적인 기준으로 하나의 발달 시간표를 구성하게 된다(윤형주, 조복희 2004). 이러한 지식이 높을수록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증가하고, 자신감의 증가는 양육행동을 더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한다(오미영, 2000; 한명은, 1998). 반면에 지식과 자신감의 부족은 부모역할 수행에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을 갖게 하기도 한다(서영미, 1998; 조결자, 이군자, 이옥자, 1999). 현대 사회의 가족구조는 양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움을 가족 외 다른 사람이나 정보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때 더욱 실질적이고 정확한 자녀양육지식이 절실히 요구된다(김순이, 1991).

한편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지만 새로운 역할에 대한 혼란과 부담감으로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로 자리하게 된다. 즉, 이제 갓 어머니가 된 여성은 자신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변화를 한꺼번에 받아들여야함과 동시에 육아의 책임까지 도맡아야하므로 이로 인해 첫 자녀를 얻었다는 기쁨과 만족감보다 다중역할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더 커지게 된다(최유리, 2005).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란 자녀의 발달과 행동에 관련된 부모의 인식과 개인적 상격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복잡하게 만들어지는 변화과정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정상적인 생활 스트레스의 일부이다(Crinic & Booth, 1991). 그러나, 이러한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자신의 삶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불안정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으로 이어져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가족과의 상호작용 패턴을 결정짓고 유아들의 불안 증상과 같은 행동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Nancy & Kevin, 2001), 양육 역할에서의 효능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게 한다(Cutrona & Troutman, 1986; Gross, Conrad, Fogg, & Wothke 1994; Gross & Tucker, 1994). 종합해보면 양육스트레스는 부모 자신의 삶의 질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로 이어져 자녀의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할 수 있다. 사회와 가족구조의 변화는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 또한 바꾸어 놓았으리라 예상되는데, 영아모들의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도 미비할 뿐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스트레스 수준을 비교하고 그 원인을 규명해본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상의 연구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여성의 임신에서 출산, 양육지식 수준, 출산이후 느끼는 양육스트레스 등에 상당한 변화가 있으리라 예상되어진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젊은 어머니의 임신 및 출산과 자녀 양육에 있어서의 외적 환경과 내적 수준 변화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특히 과거 양육방식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어머니의 기본적인 양육활동에만 관심을 두었던 점을 고려하여(강신선, 1983; 김재은, 1975; 박성연 등, 1997; 성은모, 1982; 오왕목, 1984) 본 연구에서는 핵가족, 저출산 등과 같은 가족구조의 변화와 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같은 사회적 변화에 관련하여 5년 전과 현재의 영아 어머니들의 임신과 출산, 양육지식, 양육 스트레스 수준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라는 문화적 배경 하에서 어머니들의 양육환경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정보를 제공하고, 오늘날의 양육방식과 어머니들의 현 상황을 이해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들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1> 2002년과 2007년의 영아기 첫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임신 및 출산의 여러 경향의 변화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2> 2002년과 2007년의 영아기 첫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아동발달 지식수준에는 차이가 나타나는가?
- 연구문제3> 2002년과 2007년의 영아기 첫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는 차이가 나타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5년의 시간차이 연구로 설계된 것으로 2002년과 2007년에 각1회씩 연구대상을 표집 하였다. 2002년 연구 대상은 서울, 경기, 충청, 영남, 호남지역에 거주하는 어머니로서 조사 당시 생후 36개월 미만 영아를 첫 자녀로 둔 어머니 183명이다.

5년 후, 2007년 연구 대상 선정 시 2002년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전국을 5개 지역권으로 나누고(서울, 경기, 충청, 영남, 호남) 각 지역에 거주하는 36개월 미만 영아를 첫 자녀로 둔 어머니 101명을 표집 하였다. 이중 응답이 부실하거나 자녀의 월령이 36개월 이상인 경우, 36개월 미만인 자녀가 첫 자녀가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응답 14부를 제외한 87명의 어머니의 조사결과만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2002년과 2007년 모집된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징을 비교해보면 표1과 같다.

표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2002		2007	
	n	백분율(%)	n	백분율(%)
학력				
고졸	52	28.4	16	18.4
전문대졸	34	18.6	27	31.0
대학 졸 이상	88	48.1	37	42.5
기타	9	4.9	7	8.1
어머니 연령				
20대	90	49.2	31	35.6
30대 이상	85	46.4	58	60.9
기타	8	4.4	3	3.5
어머니의 직업				
유	65	35.5	41	47.1
무	103	56.3	53	49.4
무응답	15	8.2	3	3.4
자녀의 성별				
남	97	53.0	43	54.0
여	73	39.9	38	43.7
무응답	13	7.1	2	2.3

2. 측정도구

1) 양육지식

어머니의 양육지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Larsen과 Juhasz(1985)의 Knowledge of Child Development Inventory(KCDI)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윤형주, 조복희(2004)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KCDI는 만3세까지의 아동발달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정서발달 14문항, 인지발달 14문항, 신체발달 14문항, 사회성 발달 14문항의 4개 영역으로 총 5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어머니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인지발달 1문항, 신체발달 1문항을 제외한 54문항을 사용하였다. 4지 선다형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대상자가 각 문항을 읽고 맞다고 생각되는 문항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의 대답이 옳을 경우 1점을, 옳지 않을 경우 0점을 부과하여 점수화한 후 평균을 내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아동의 발달에 대한 올바른 양육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Larsen과 Juhasz(1985)의 원척도에서는 문항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93, 준거타당도 .83으로 통계적으로 매우 신뢰롭고 타당한 도구인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계수가 .77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지식의 4개 영역별 내용과 신뢰도 계수는 표 2와 같다.

표2
36개월 미만 영아 어머니의 아동발달 지식 하위영역의 내용

영역	내용	신뢰도 계수
정서발달	영아의 신뢰감, 친밀감, 독립성, 수치심, 애착 등	.83
인지발달	영아의 놀이, 언어, 지각능력 등	.80
신체발달	영아의 반사능력, 운동능력, 수면, 영양상태, 건강상태, 배변훈련, 안전 등	.58
사회성발달	또래집단과의 관계, 규칙, 평행놀이, 협동, 정서표현, 공격성, 초기 사회경험, 집단에 대한 일치감 등	.68

2) 양육 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한국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맞게 개발하고,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양육스트레스 척도 중 일부를 사용하였다. 김기현과 강희경(1997)의 연구에서는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12문항,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12문항,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 8문항,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3개의 하위요인 중 취업모, 비취업모 모두를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의 특성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2개의 하위요인 즉,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문항과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또, 아동학 전문가 5인의 자문

에 의해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문항 중 이 연구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1개의 문항을 제외하여 총 23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자녀양육에 대한 일상생활 스트레스는 .88,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는 .87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1) 예비조사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문항 곤란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어머니의 양육지식 측정도구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아동학 전공자 5인의 전문가들에게 안면타당도를 검증받았다. 그 후, 본 연구에 사용될 문항 전체를 36개월 미만의 영아를 첫 자녀로 둔 어머니 25명에게 응답하도록 하였다. 조사결과, 어머니들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응답에 곤란을 느낀 문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 질문지를 2002년과 2007년 조사에 그대로 사용하였다. 예비조사 시 사용된 질문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 2002년 조사

본 조사를 위해 전국을 5개의 권역으로 나눈 뒤(서울, 경기, 충청, 영남, 호남) 각 지역에 거주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약 2주간 실시하였다. 어머니의 양육에 관한 일반적 배경과 양육지식,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질문지를 배포한 후,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거나, 우편을 통해 회수하였다. 전체 질문지 회수율은 87.5%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우편접수보다 직접회수를 할 경우 더 높은 수준의 회수율을 보였다.

3) 2007년 조사

2002년 1차 조사 시 지역적 분포를 고려하여 서울, 경기, 충청, 영남, 호남권에 거주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2주간 실시하였다. 2002년 조사 때 사용했던 같은 질문지를 배포 한 후, 우편을 통해 회수하였으며, 회수율은 63.3%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를 산출하였고, 연도별 아버지의 육아참여 정도, 어머니의 양육지식 및 양육스트레스 수준의 차이비교를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임신 및 출산환경의 변화

36개월 미만 영아를 첫 자녀로 둔 어머니의 임신과 출산환경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임신 관련 상황, 출산 전·후의 환경, 남편의 육아참여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어머니의 출산 전 특성

어머니가 첫 자녀를 갖는 시기를 살펴본 결과, 2002년에는 결혼 후 첫 자녀를 갖기까지 걸린 기간이 평균 13.08개월($SD=17.64$)로 나타났다. 2007년 우리나라 어머니의 첫 자녀 임신기간은 평균 12.62개월($SD=13.39$)로 조사되어, 임신까지 걸리는 기간이 0.46개월 빨라졌음을 알 수 있었다 (표3).

표3
첫아이 임신까지 걸린 기간

단위	2002				2007				
	<i>n</i>	<i>M</i>	<i>SD</i>	range	<i>n</i>	<i>M</i>	<i>SD</i>	range	
첫아이 임신까지 걸린 기간	개월	168	13.08	17.64	0-132	84	12.62	13.39	0-72

어머니의 임신이 사전에 계획했던 것인지에 관한 여부와, 임신 및 출산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얻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는 표4와 같다. 먼저, 첫 자녀 임신에 있어서 2002년 80.6%의 어머니가 임신을 미리 계획하고 원했다고 대답하였고, 2007년에 89.7%가 임신을 계획하고 출산했던 것으로 나타나 과거에 비해 임신을 보다 계획적으로 조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임신 및 양육에 대한 정보는 연도와 상관없이 책이나 잡지, 친구와 이웃, 대중매체 순으로 많이 얻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책이나 잡지가 여전히 정보를 얻는 가장 중요한 원천으로 자리 잡고 있긴 하지만, 서적이거나 친정 어머니, 부모교육 강좌, 친인척을 통해 양육에 관한 정보를 얻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TV나 인터넷과 같은 대중매체에 대한 정보 의존도가 2002년 30.6%에서 2007년 64.4%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의료인에게 정보를 얻는 비율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표4
임신 계획 및 임신에 관한 정보의 근원

	2002		2007	
	n	백분율(%)	n	백분율(%)
임신 계획				
원했던 임신	142	80.6	78	89.7
원하지 않았던 임신	34	19.4	9	10.3
임신에 관한 정보 근원 (복수 응답가능)				
책, 잡지	161	88.0	70	80.5
친구, 이웃	20	65.6	65	74.7
TV, 라디오, 인터넷 등 대중매체	56	30.6	56	64.4
친정 어머니	49	28.8	24	27.6
시어머니	11	6.0	9	10.3
간호사, 의사 등 의료인	24	13.1	26	30.0
부모교육 강좌	25	13.7	9	10.3
친척	12	6.6	2	2.3

2) 출산 및 산후 환경 변화

어머니의 출산 유형 및 출산 시 남편의 위치, 출산 후 산후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 알아본 결과는 표3과 같다.

먼저, 출산유형은 2002년에는 자연분만율이 59.9%, 제왕절개율이 41.1%로 자연분만과 제왕절개율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2007년에는 응답자의 75.3%가 자연분만으로 출산을 한 반면, 24.7%만이 제왕절개로 출산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의 출산 시 남편의 위치를 조사해본 결과, 5년전에 비해 남편이 아내의 출산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에는 76.6%의 남편이 분만대기실에 있었던 것에 비해, 2007년에는 38.8%만이 분만대기실에 있었으며, 분만실에 함께 있었던 비율은 12.0%에서 47.1%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 외 기타 응답으로는 외국체류, 차안에서 이동 중 등의 대답이 있었다. 출산 후 산후조리는 2002년에는 친정식구(68.9%)나 시집식구(12.8%)에 의존했던 비율이 2007년에는 각각 53.6%(친정식구), 3.6%(시집식구)로 낮아졌다. 식구들의 의존도가 줄어든 반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2002년 14.6%에서 2007년 33.3%로 높아졌으며, 산후조리를 위해 따로 고용인을 두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었다.

표5
어머니의 출산과 산후 특성

	2002		2007	
	n	백분율(%)	n	백분율(%)
출산유형				
자연분만	100	59.9	64	75.3
제왕절개	67	41.1	21	24.7
출산 시 남편의 위치				
분만실	20	12	40	47.1
분만 대기실	128	76.6	33	38.8
직장	16	9.6	5	5.9
집	3	1.8	2	2.4
기타	0	0	5	5.9
산후 조리				
남편	5	3.0	2	2.4
친정 식구	113	68.9	45	53.6
시집 식구	21	12.8	3	3.6
산후 조리원	24	14.6	28	33.3
고용인	1	0.6	6	7.1

3) 남편의 육아참여

아버지의 육아 참여도를 비교해 보기 위해, 주당 남편이 밤에 아이를 돌보는 횟수, 아이를 재워주는 횟수, 목욕을 시키는 횟수, 기저귀를 갈아주는 횟수를 조사해 본 결과, 36개월 미만의 영아를 첫 자녀로 둔 아버지의 육아에 대한 참여수준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각 항목별로 평균 빈도를 살펴보면, 아버지가 밤에 일어나 아이를 돌보는 경우는 2002년 주 2.46회, 2007년에는 주 2.37회 정도로 나타났고, 아이를 재워주는 횟수는 2002년 주당 3회, 2007년 연구에서는 주 2.55회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이를 목욕시키는 횟수는 2002년에 주 2.59회, 2007년은 주 2.68회로 나타났으며, 아버지가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횟수는 2002년 주 6.26회, 2007년에는 주 6.33회 정도로 조사되었다.

표6
남편의 육아참여

	2002		2007		t값
	주당 횟수	range	주당 횟수	range	
남편의 육아참여					
밤에 돌봄	2.46	0-10	2.37	0-20	.22
재워주기	3	0-20	2.55	0-7	1.21
목욕시키기	2.59	0-7	2.68	0-10	-.27
기저귀 갈아주기	6.26	0-30	6.33	0-30	-.08

2. 양육지식 수준의 변화

자녀 발달과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지식 수준을 영역별로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정서, 인지, 사회, 신체발달 순으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2002년 어머니의 양육지식 전체에 관한 정답율이 74%인데 비해 2007년 영아모는 70%의 정답율을 보여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t=2.04^*$). 각 발달영역별로 분석한 결과, 2002년 영아모의 인지발달에 관한 문항 정답율이 83%였고, 2007년 영아모의 지식수준이 77%수준으로 낮아졌으며($t=3.29^{***}$), 사회성 발달에 관한 지식수준에 있어서도 2002년 72%에서 2007년에는 63%로 낮아졌다($t=4.64^{***}$). 반면 신체발달에 관한 지식은 2002년 56%에서 2007년 60%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t=-2.50^*$).

표7
영아 어머니의 아동발달 지식수준

양육지식 발달영역	2002			2007			t값
	n	정답율(%)	range	n	정답율(%)	range	
정서발달	129	84	42.86-100	81	81	35.71-100	1.53
인지발달	140	83	46.15-100	83	77	53.85-100	3.29***
신체발달	138	56	30.77-84.62	80	60	28.57-85.71	-2.50*
사회성발달	130	72	14.29-100	84	63	25.82-87.23	4.64***
발달지식 합	92	74	53.85-90.80	78	70	53.57-87.23	2.04*

* $p<.05$, ** $p<.01$, *** $p<.001$

3. 양육 스트레스 수준의 변화

자녀 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스트레스 지각 수준을 비교해 본 결과, 2002년($M=5.01$, $SD=1.10$)에 비해 2007년($M=5.45$, $SD=1.86$)의 영아 어머니가 자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2.34^*$). 양육 스트레스의 하위 항목별로 살펴보면, 2007년 현재의 영아 어머니가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를 유의미한 수준으로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t=-2.08^*$), 통계적으로는 무의미하나 자녀양육에 대한 일상생활 스트레스 수준도 미약한 수준으로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8
영아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 스트레스 수준

양육 스트레스	2002			2007			t값
	n	M	SD	n	M	SD	
자녀양육에 대한 일상생활 스트레스	157	2.65	.65	87	2.87	.10	-1.86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157	2.36	.69	87	2.58	.98	-2.08*
양육 스트레스 합	157	5.01	1.10	87	5.45	1.86	-2.34*

* $p < .05$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36개월 미만 첫 자녀를 둔 젊은 어머니들의 임신 및 출산, 양육환경의 변화를 비교해본 결과, 결혼 후 임신까지의 기간은 0.46개월 앞당겨졌고, 계획에 따라 임신을 하는 비율도 82.6%에서 89.7%로 더 높아졌다. 어머니들은 임신 및 육아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 의존하는 비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었다. 5년 전에 비해 제왕절개로 출산하는 비율은 41.1%에서 24.7%로 낮아졌고, 그에 따라 자연분만 비율이 높아졌으며, 출산 시 남편이 같이 분만실에 있는 비율도 12%에서 47.1%로 크게 증가하였다. 산후 조리는 친정식구나 시댁식구에 의존하던 비율이 줄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거나 따로 고용인을 두고 집에서 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었다. 남편의 육아 참여 정도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고, 어머니의 양육지식 수준은 좀 더 낮아졌으며($t=2.04^*$), 양육 스트레스 수준은 더 높게 나타나고 지각하고 있었다($t=-2.34^*$).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36개월 미만 영아를 첫 자녀로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환경, 영아발달에 대한 지식수준, 출산이후 느끼는 양육스트레스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2002년과 2007년 두 번에 걸쳐 조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 결과를 논의하고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의 임신 및 출산, 양육환경에 대한 변화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첫 아이 임신은 2002년에는 결혼 후 평균 13.08개월, 2007년에는 12.62개월로 0.46개월 가량 앞당겨졌다. 이러한 원인은 교육에 대한 열망과 미혼여성의 취업기회 확대, 자아성취 욕구의 증대 등으로 인한 여성의 초혼연령 상승, 즉 만혼현상과 맞물린 결과로 보여진다. 보건복지부(2005)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남녀의 초혼연령은 1960년 남자 25.4세, 여자 21.6세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3년에는 남자 30.1세, 여자 27.3세로 만혼의 경향을 뚜렷이 보이고 있다.* 또,

* 1960년과 1970년의 통계자료는 초혼연령이 아니라 혼인연령이기 때문에 재혼연령의 영향을 감안한다면 실제 초혼연령의 상승폭은 이보다 더 클 것임.

미혼남녀의 48.1%가 '이상적 결혼연령이 없다'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상적 결혼연령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평균 29.3세가 이상적이라고 응답하였다(미혼남성 29.0세, 미혼여성 29.6세)(보건복지부, 2005). 이러한 결과는 미혼여성의 경우는 현재의 평균 초혼연령보다 높은 연령을 이상적이라고 하여 결혼연령이 다소 상승될 여지를 보이는 것으로, 결혼 후 첫 아이 임신시기가 더 빨라 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늦어진 결혼으로 임신과 출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된 실태는 결혼이라는 커다란 전환 후 적응할 여유도 없이 또 다시 부모라는 전환을 맞게 되는 어머니들에게 양육에 대한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더욱 가중시키게 되리라 판단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결혼 전과 출산 전 부모 준비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둘째, 과거에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은 가족구성원인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친척아주머니 등에 의해 도움을 받고 교육받았으나, 현대사회에서는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그 지지군이 상실되어 즉각적인 도움을 받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대중매체와 의학 전문가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육아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정보화 사회가 시작됨에 따라 인터넷을 비롯한 대중매체가 새로운 정보의 근원으로 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신생아기에서 학령기 아동을 자녀로 둔 어머니들이 양육지식을 주로 서적이거나, 신문 및 방송을 통해 얻고 있다는 유경희(2000)의 연구결과와, 어머니들이 자녀 양육 및 교육 정보를 주로 얻는 방법으로 친정이나 시부모들 보다 신문, 잡지, TV, 인터넷에서 더 많이 얻고 있다는 백종화(2001)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이를 종합해보면 어머니들이 육아에 관한 정보를 얻는 통로로서 인터넷을 비롯한 대중매체가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반면, 친정부모와 시부모의 정보는 점점 뒤로 밀려나고 있어 육아정보에 대한 세대 간 전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머니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실질적인 조력이 아닌 '정보'라는 점에서 볼 때, 정보화 사회에서 이러한 변화는 필연적인 것으로 보이며 육아당당자인 어머니들의 평균 연령을 고려해 보아도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정보의 근원으로 이용하는 비중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출산유형에 있어서 제왕절개 분만이 줄어들고 자연분만 비율이 증가하고 있었으며, 남편이 분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비율도 증가하였다. 제왕절개분만은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였는데, 선행연구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제왕절개로 분만을 하는 경우가 1980년에 15.1%, 1990년에는 18.0%, 2000년에 31.7%, 2003년에는 40.7%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다(김영남, 2004). 본 연구결과에서 2002년 제왕절개 출산율은 41.1%로 선행연구 결과와 비슷한 수치를 보였으나, 2007년에는 제왕절개분만이 24.7%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자연분만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제왕절개에 비해 자연분만이 산모에게 뿐 아니라 아기에게도 심리적, 신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들이 대중매체를 통해 많이 알려진데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 최근 라마즈 분만법이나, 소프놀로지 분만법, 수중분만법 등 산모와 태아에게 보다 유익함이 있는 새로운 자연

* 자연분만 한 어머니에 비해 제왕절개를 한 어머니가 자녀를 학대한 경우가 두 배 더 많았고 (Lynch &Robert, 1977), 제왕절개 산모는 자연분만한 산모에 비해 모유수유가 어렵다 (김혜숙, 최연순, 전은미, 1994; 이자형, 변수자, 한경자, 1994)는 등 제왕절개에 대한 부정적 연구결과가 많이 발표되었다.

분만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김희숙, 2003; 이정노, 1999; 윤경숙, 2001; 정말예, 2001) 국내외적으로 가족분만 또는 남편 참여 분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도 그 이유가 될 수 있다. 실제 여러 연구 결과, 남편이 출산과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아기와 부인에게 더욱 강한 친밀감을 경험하고, 이후에 아버지 역할을 보다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지지는 산모가 출산경험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하고(박공례, 1990), 분만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짐으로써 모아애착과 원만한 가족관계 형성에 효과를 줄 수 있다(이영옥, 2003). 또, 분만에 참여한 아버지군과 참여하지 않은 아버지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분만에 참여했던 아버지들이 부성애착 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영옥, 2003; 황은주, 2003), 분만에 참여했던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 자신감 정도 또한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다(황은주, 2003). 이와같이 남편이 자녀 출산 시 분만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산모와 아기 뿐 아니라 아버지 됨에 있어서도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밝혀짐에 따라 앞으로는 분만에 남편이 참여하는 모습은 보편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영아의 발달에 관한 지식은 정서, 인지, 사회, 신체 발달 순으로 높게 지각하고 있었으며, 어머니의 양육지식 수준은 5년 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영아모들이 대중매체를 통해 얻은 정보를 육아에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선행연구(이근영 외, 2004)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어머니들이 필요할 때 마다 손쉽게 얻게 된 양육에 대한 정보가 완전히 이해되어 지식으로 내면화 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양육지식 수준의 저하는 양육행동을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떨어뜨려 양육행동을 어렵게 만들게 될 것이며(오미영, 2000; 윤형주, 조복희, 2004; Larsen & Juhasz, 1985), 이는 곧 자녀의 발달을 이해하고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을 어렵게 하고, 부모의 효능감을 떨어뜨려 양육에 대한 부담감과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될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 스트레스의 수준은 2002년에 비해 2007년 현재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5년 전에 비해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아진 것은 어머니의 환경적 변화와, 인지적, 심리적 요인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핵가족화와 부부중심 문화로 인해 양육에 있어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없는 사회적 고립 및 사회적 지지체계는 약화된데 비해, 어머니가 자신의 양육에 대한 확신을 갖는데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는 양육지식 수준은 점점 더 낮아진 것이 부모됨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보여진다. 이러한 요인들은 자녀를 잘 양육하고 싶은 어머니의 기대감과 현실적인 괴리를 더욱 크게 인식하게 할 것이며, 이는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 첫 자녀를 둔 어머니로 한정하여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한 변화추이를 비교해보았다. 어머니에게 있어 첫 자녀란 여러 가지 의미와 기대를 갖게 한다. 처음으로 자녀를 낳아 기르게 되는 어머니들은 자신의 첫 자녀에 대해 각별한 감정을 갖을 수 있으며, 이러한 감정은 어머니의 양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예로,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전통적으로 만이에 대해 기대감이 높고(유안진, 김연진, 1987), 책임감을 더 갖게 하고, 능력에 대해 더 큰 압력을 가한다고 한다(김영미, 2001). 출생순위가 빠를수록 부모는 보다 많은 주의와 지도를 하며 자녀들의 지적육구에 깊은 흥미를 나타내어 교육에 많은 경제적 투자를

하고(Watson & Lindgen, 1973), 특히 첫째 자녀에게는 어린연령에서부터 학업과 연관된 발달에 높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장은경, 박은혜, 김희진, 1998; 현온강, 공인숙, 김영주, 이민정, 1997), 부모의 첫 자녀에 대한 높은 기대와 관심수준은 선행 연구들에서 일관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첫 자녀에 대한 기대 및 관심 수준과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모역할 경험과 양육에 대한 어려움과 부담감으로 나타날 것이고, 이러한 어려움의 정도는 사회구조의 급변이라는 외부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듯, 가족구조와 사회구조는 어머니의 자녀 양육을 더 어렵게 변화였고, 필요할 때 마다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양육정보는 지식으로 내면화되지 못하고 있어 양육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스트레스 수준은 더 높아지는 결과를 낳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영아기 첫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의 변화추이를 살피기 위해 2번에 걸친 조사를 하면서, 지역적 안배 외에도 어머니의 학력과 연령, 직업유무 등을 살피며 연구대상을 선정하였으나 사회 인구학적 배경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했고, 임의표집법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기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또, 표집을 위해 2002년과 2007년에 각 2주에 걸쳐 실시하였으나, 2007년의 연구대상자 수 (87명)가 2002년 (183명)에 비해 불균등하게 표집 되어진 것 역시 연구의 제한점으로 남는다. 과거와 현재의 변화추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집단 간에 차이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통제해야 하며, 집단 간 사례 수 선정에도 보다 정교하게 계획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2002년과 2007년 36개월 미만의 첫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환경과 양육지식, 양육 스트레스의 수준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급변하는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 어머니들의 양육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남미(1985). 아버지의 산전간호참여도와 신생아에 대한 애착행위인식 정도와의 상관관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강신선(1983). **농촌 어머니의 육아 관행에 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기현, 강희경(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 김순이(1991). 어머니의 자녀양육을 위한 준비도에 따른 육아지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남(2004). 제왕절개분만의 빈도와 적응증의 변화양상: 1980-2003년의 24년간 부산백병원에서 시행한 총 6,051 제왕절개분만 예의 분석.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미(2001).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재은(1975). 한국 어머니의 육아 실제에 관한 일 연구:0-2세까지의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26, 173-191.
- 김혜숙, 최연순, 전은미(1994). 제왕절개분만 산욕부와 신생아의 가정간호 사례분석. **대한간호학회지**, 24 (4), 696-703.
- 김희숙(2003). 출산여성의 일반 분만과 선택 분만에 따른 출산경험의 지각.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문재희(1987). 제주도의 육아속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공례(1990). 산모가 인지하는 배우자의 지지와 출산 경험과의 관계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성연, 도현심, 안지영(1997). 어머니의 육아 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3), 47-62.
- 보건복지부(2005). **저출산의 영향과 대응방향**.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자료.
- 백종화(2001). 어머니의 인터넷 이용 실태 및 사회적 지지로서 인터넷 이용이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영미(1998). 신생아 돌보기 교육 프로그램이 초산모의 신생아 돌보기 지식, 자신감,행동 정확도에 미치는 효과.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성은모(1982). 한국 어머니의 육아법에 관한 조사연구: 수유, 이유, 배변 훈련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미영(2000). 산욕기 초산모의 영아돌보기 지식과 자신감과 관계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왕목(1984). 사회 계층에 따른 육아 방식에 관한 일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경희(2000). 아동 양육에 관한 어머니의 교육 요구도. **대한간호학회지**, 30(4), 905-916.
- 유안진, 김연진(1987). **부모교육**. 서울:정민사.
- 윤경숙(2001). 수중분만 산모군과 통산분만 산모군의 분만 경험 비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

- 사학위 청구논문.
- 윤형주·조복희(2004).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가정의 양육환경 및 그 관계성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1(2), pp. 59-88.
- 이근영·장유경·임현정(2004). 영아모의 자녀양육지식 수준에 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9(1), 45-63.
- 이미자(1992). 배우자의 라마즈 산전교육제도 도입을 위한 실험적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영옥(2003). 가족분만실과 일반분만실에서 인지한 분만 경험 비교 분석. 부산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자형, 변수자, 한경자(1994). 모유수유 관련요인 및 어머니의 교육요구. **간호과학**, 6, 76-85.
- 이정노(1999). 라마즈 분만준비교실의 효과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정덕, 박영진(1984). 한국과 일본의 육아방식에 관한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2(1), 141-156.
- 장은경, 박은혜, 김희진, 1998;
- 정말예(2001). 특수 분만병원의 선택에 관한 연구: 라마즈 분만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결자, 이군자, 이옥자 (1999). 신생아 돌보기 교육이 어머니의 자신감과 양육태도에 미치는 효과. **아동학회지**, 5(1), 84-96.
- 조복희(2006). **아동발달**. 교육과학사.
- 최유리(2005). 어머니의 육아방식 및 양육지식에 관한 연구: 12개월 이하의 첫 아이를 둔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은주(2003). 아버지의 가족분만 참여유무에 따른 부성애착과 역할자신감의 비교. 고신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현온강, 공인숙, 김영주, 이민정 (1997). 유아 학습지의 현황 및 인식도. **아동학회지**, 18(2), 67-93.
- Crinic, K. A., & Booth, C. L.(1991). Mothers' and fathers' perceptions of daily hassles of parenting across early child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1042-1050.
- Cutrona, C. E., & Troutman, B. R.(1986). Social support infant temperament and parenting self-efficacy: A mediational model of postpartum depression. *Child Development*, 57, 1507-1518.
- Gross, D., Conrad, B., Fogg, L., & Wothke, W.(1994). A longitudinal model of maternal self-efficacy, depression, and difficult temperament during toddlerhood. *Research in Nursing & Health*, 17, 207-215.
- Gross, D., & Tucker, S.(1994). Parenting confidence during toddlerhood: a comparison of mothers and fathers. *Nurse Practitioner. American Journal of Primary Healthy Care*, 19 (10).

- Larsen, J., & Juhasz, A., M.(1985). The knowledge of child development inventory. *Adolescence*, 21(81), 39-54.
- Lynch, M. A., & Robert, J.(1977). Prediction Child Abuse: Signs of Bonding Failure in Maternity Hospital. *Br. Med. J.*, 1, 624- 626.
- Watson, R. I., & Lindgen, H. C.(1973). *Psychology of the Child* (2nd ed.).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nges of mothers' condition including the level of knowledge and parenting stress that mothers have on infant development.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270 mothers whose infants range in age from birth to 36 months. The instruments used are: 1)KCDI(Knowledge of Child Development Inventory, Larsen & Juhasz, 1985) 2)Parenting Stress Scale(Kim & Kang, 1997), and a demographic questionnaire. The data analyses use SPSS 12.0 which employs basic statistics, reliability test, and t-test. This study is time-lag design covering five years. Therefore, the data collected originates from 2002 and 2007 to constitute input from two time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average pregnancy from the 2007 statistics occurred 0.46 months earlier, after marriage, as compared to pregnancies in 2002. Mothers who gave birth by natural birth increased from 59.9 % to 75.3 % over the five year period. Regarding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the level of mothers' knowledge was lower in 2007 than in 2002 according to study results. The level of parenting stress of mothers increased for the 2007 statistics as compared to the 2002 survey.

Key words: Infancy, Knowledge of child development, Parenting stress

2007. 11. 26. 접수 : 2007. 12. 20. 채택